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환영이다

| 홍광일 |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실재라고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의 비실재성을 철저히 경험할 때 진정한 자아의 정체가 발견된다는 저자의 글을 보십시오(편집자 주).



두 가지 보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으리라.(마태6 : 19-21)

성경의 물질적, 외면적 보물관

세상에서 ‘보물’의 사전적인 의미는 희소가치로 인하여 보배처럼 아주 소중한 사물을 가리킵니다. 위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보물은 세상의 관점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것으로서, 좀을 먹거나 녹이 슬거나 도둑이 훔쳐갈 수 있는 대상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이란 일차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금은보화金銀寶貨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보물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보물treasure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마음heart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수업의 보물관은 전혀 다른 측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보물은 물질적인 3차원이 일절 없으며 순전히 내면적인 4차원의 맥락을 띠고 있습니다.

그대가 무엇이든 두려워할 때, 그것이 그대를 해칠 수 있는 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 또한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그대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이다.(T, 2 : 18)

기적수업의 내면적 보물관

본문은 비록 성구를 인용한다는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둘째 문장은 성서의 본문을 절節로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기적수업 <텍스트> 2장 18절과 성서 마태복음 6장 21절의 두 본문은 주절과 종속절의 순서만 서로 바뀌었을 뿐 소유대명사, 명사, 동사, 부사 등 어휘 면에서 상호 일치합니다. 다만 주절과 종속절이 서로 정반대인 만큼, 보물에 대한 관점은 정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보물이 금은보화인 물질이라면, 수업의 보물은 사람의 마음이 가치價値를 매기는 바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음이 보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마음을 따라잡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heart이 있는 곳에 보물treasure이 있게 됩니다. 보물은 마음에 의해 마음 안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적수업의 보물은 이렇게 외면적인 3차원이 아니라 내면적인 4차원에 존재합니다.

신약성서의 관점

보물을 대하는 태도 역시 성서와 기적수업은 크게 다릅니다. 신약에서 보물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맥상 선행善行과 봉사奉事의 행위를 뜻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웃사랑에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신약성서의 보물관은 물질적인 일차적 의미를 넘어 영적인 의미로 승화됩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를 출처로 생각하는 이 말씀에 대해 마태복음 저자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누가는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를 위해 “너

희 소유를 팔라”며 구체적으로 교훈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누가12 : 33-34)

성서적 구제의 개념

지상에서의 구제救濟는 “남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보물을 하늘에 보관하는 배낭purses이며, 남지 않으므로 줌moth을 먹지 않습니다. 도둑도 훔쳐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 하늘 배낭은 오로지 구제로써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구제로써 남을 도울 때, 천부께서는 성도의 선행을 기억합니다. 즉 땅에서 구제할 때, 하늘에 저축됩니다. 내가 땅에서 남을 위해 돈을 지출할 때, 신은 나의 착한 행실을 기억하므로 하늘에 복福이 쌓입니다. 이 복은 다함이 없는 영원한 복이자 진정한 보물인데, 성도는 다함 없는 영생의 복을 바라볼수록 지상에서의 선행에 더욱 힘씁니다. 말하자면 땅의 선행은 하늘의 복을 부르고, 하늘의 복은 땅의 선행을 부르는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순환 자체는 논리적이고 자연스럽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서 남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기부나 구제보다 내 삶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복을 쌓아 하늘에서 영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서는 내 삶이 일차적이지자 더욱 소중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의 교훈은 기본적으로 부드

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엄격한 계명(誡命)의 성격을 띠니다.

성서적 교훈의 엄격성

복음서의 예수는 본문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구제하여 남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명령합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희생한 예수는 마태복음에서도 명령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성서의 말씀은 신적 명령(神命)의 형식으로써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 집니다. 이에 성도는 이웃사랑에 신앙적 의무감을 느끼며 헌신에의 무거운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마가복음 10장에서 개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 감당해야 할 ‘희생’으로 더욱 크게 확장되는데, 모든 신자는 꼼짝없이 계명의 포로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마가10 : 29-30)

교회의 성도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밭은 물론 부모와 형제 들까지 버려야 leave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신앙이 불타는 초대교회 시절이었다고 해도 이러한 소명 앞에 망설이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의 입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복음서 저자는 희생적 명령과 함께 ‘현세의 복’을 100배로 약속합니다. 내용인즉슨 신을 향한 희생적 복종은 어려움을

동반하기는 하겠지만 “현세에 있어in this present age”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생은 덤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소명과 약속은 실제로 많은 신자들의 헌신(獻身)을 이끌어냈습니다. 교회사에는 구제와 선교를 위해 재산을 바친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등지며 ‘현세의 약속’마저 초월한 이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당 건축을 위해 집을 팔아 희사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 오로지 기도와 청빈에 몰입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헌신적인 성도들의 모습은 희생을 요구하는 성서적 계명의 빛을 더욱 밝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의 계명에 복종하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교회의 복음사역보다 부모형제와 자식과 재산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신자들에게 구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헌신적 행위는 구원의 참신앙(Saving faith)을 증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의 문은 참으로 좁지 않을까요?

실제로 성서의 하나님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 교회 안의 사람들마저 모두 구원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성서와 개혁교회의 정통 교리에 따르면, 신은 그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중 얼마는 영생을 받도록 예정하였고, 다른 이들은 영원히 멸망하도록 미리 예비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3 : 3, 마태25 : 41, 롬9 : 22-23, 엡1 : 5-6, 잠16 : 4)

희생적 계명에 따른 신자의 불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불안’

돌아보면 저 자신 이웃사랑을 모토로 지난 10여 년간 단독 목회를 하며 교회와 사회에 헌신했다고 자부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자식과 아내와 부모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죽

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야 했고, 예수는 언제나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보다는 나의 죄책을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린 속죄양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단지 불안한 영적 현실로부터의 심리적 도피일 뿐이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Martin Luther(1483-1546)가 죽음에 대한 ‘불안Anfechtung’으로 인해 신약성경에서 신앙적 행위를 강조하는 본문들을 모두 무시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기독교 신앙적 인식은 단 한 가지, 실재를 외면적으로도 파악하는 성서의 3차원적 관점에서 비롯됐습니다. 외면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이 실재라면 신에 대한 헌신은 당연히 그것들을 실제로 버리는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수업의 관점

기적수업의 내면적 실재관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서의 굴절을 넘어 예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대안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수업이 갖고 있는 ‘내면적 실재관’입니다. 수업에서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보석이 아닙니다. 실재는 인간의 내면에 있으므로 진짜 보석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면적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크북> 355과의 기도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약속하신 기쁨을 받기 위해 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망명 중에 있는 아들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을 당신께서는 간직하 니다. 제 보물treasure은 저를 기다리고 있으며, 오로지 손을 뻗기만 하면 찾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나는 영적 각성을 통해 나의 정체를 기억하게 됩니다.
땅과 세상을 살아가는 몸나는 나의 진정한 정체가 아니요,
참나는 아버지와 함께 변함없이 하늘에 실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순간에도 제 손가락은 보물을 만지고 있으니, 그 보물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해 단 한 순간도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은 당신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제 정체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것이며, 당신께서 성부이시요, 창조주이시며, 참사랑이심을 알 것입니다.(WL, 355 : 1)

예수님의 보물관

예수님에 따르면, 신의 아들에게 있는 보물은 “신께서 약속하신 기쁨 the joy You promised”이요, “신의 말씀 Your Word”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평화 peace forever”입니다. 그것은 “신神”이요 “신과 함께하는 나의 정체 my identity along with You”입니다.

세상에서 재물財物이 좋은 이유는 결국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만족으로 인함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결코 보물일 수 없습니다. 재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재물(보물)은 어차피 마음에서 확인되고 마음이 결정하는 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워크북>이 말하는 보물은 정녕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보물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 보배로운 정서는 바깥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이 아니요 신적이며,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입니다. 이 기쁨과 평화는 성부와 그분의 말씀을 상징

합니다. 따라서 신과 거룩한 말씀이 내적 보물의 원형입니다. 진정한 보물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나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신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물관은 우리의 정체Identity를 생각할 때 이제 실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아버지... 망명亡命 중에 있는 아들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을 당신께서는 간직하 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은 당신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제 정체正體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것이며, 당신께서 성부이시요, 창조주이시며, 참사랑이심을 알 것입니다.

망명 중에 있는 신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가 “망명 중에 있는 신의 아들His Son in exile”이라고 말씀하 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곳으로 망명하였습니다. 아담인 나 스스로 에덴동산을 떠나 내가 나를 세상에 유배시켰습니다. 이것은 고약한 꿈이요 환상이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부드럽게 깨우고 계 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늘 아버지께 대한 기억과 그 말씀이 늘 간직되어 있으며, 이 기억과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곧 깨어남 벗 입니다.

나는 영적 각성을 통해 나의 정체를 기억하게 됩니다. 땅과 세상을 살아가는 몸나는 나의 진정한 정체가 아니요, 참나는 아버지와 함께 변함없이 하늘에 실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의 정체를 기억하는 아들은 비록 꿈속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Himself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세상에 있는

동안 그분의 참사랑을 누리며 행복한 꿈을 꾸니다. 기적수업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보물을 얻음입니다.

기적수업 <워크북>에는 우리와 함께 신의 보물을 누리는 예수님의 시詩와 노래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귀환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깨어남을 위하여

그저 용의가 필요할 뿐

그러면 깨어남Awakening을 위해 아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저 깨어날 뿐입니다. 아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저 깨어나는 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깨어나고자 하는 용의willingness는 있어야 하니,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아들의 용의가 스스로를 꿈속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깨어나려는 용의를 갖고 더 이상 땅에 대한 투자를 멈추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늘(실재)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에도 투자하고 하늘의 보물에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있는 보물만 가치 있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기적수업을 주셨으며, 수업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 니다. 세상을 떠남은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씀하 니다. 세상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은 계속 내게 생생한 현실을 제공할 것이 나, 세상에 더 이상 목표와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세상을 사는 데 필요

한 몸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신할 환상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WL, 226 : 1)

그러므로 신의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려면 꿈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으로부터 가치와 목적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깨우는 방법, 내가 망명을 접고 집으로 귀환하는 방법이란 오로지 이것입니다.

구원은 용의와 선택의 문제일 뿐, 구원을 위한 봄Vision의 기능 결국 아들의 구원은 용의用意와 선택選擇의 문제로 환원됩니다. 이 3차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은 오로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용의와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용의와 선택을 위해 기적수업은 오로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데 그것은 봄vision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믿고 행동하기 마련이므로, 참나를 선택하는 구원은 단순히 ‘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에 성령은 수업을 통하여 우리의 육안을 영안으로, 그른 지각을 바른 지각으로 교정해줍니다. 지각의 교정이 기적수업의 핵심 커리큘럼이자 기적Miracle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수업에 참여하면 하늘에 대한 ‘용의’와 ‘선택’은 대단히 쉽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영안靈眼으로 볼 때는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세상의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실재 세상real world이 되어 땅과 세상을 대체하며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진정한 종교개혁

저는 이제 성서보다는 기적수업을 읽을 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세상을 실제로 바라보는 성서보다는 세상을 비실재로 보는 기적수업이 더 좋습니다. 세상이 환상이며, 세상을 경험하는 몸나도 환상에 불과하기에, 그동안의 모든 신앙적 의무를 깨끗이 면제해주는 기적수업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이제 구원을 위하여 돈을 하늘에 쌓아두거나, 부모형제와 처자식, 토지를 버려야 할 숙제는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실재가 아니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할 것도 없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 기적수업은 지난 2년여 동안 제게 면죄부indulgence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免罪符는 한 보수 정통파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참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6-17세기 종교개혁 이후 로마교회가 프로테스탄트에게 중세의 구교舊教가 되었듯이, 오늘날 기적수업을 통해 제대로 거듭난 저에게 신교新教는 이제 구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변함이 없으며, 천국은 지금 이곳에 실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구원이란 이것을 온전히 아는 상태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와 그가 밝히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처럼(사도행전9장), 이 글을 읽은 우리 모두의 눈에서 육안의 비늘이 벗겨지므로, 이곳에 실재하는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끝) 

- 이 글은 『4차원 신앙수업 : 예수에게서 배우는 영적 혁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네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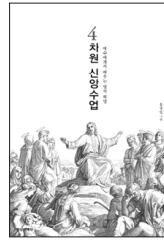
저자 | **홍광일**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B.A.)과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Th.M.) 동대학원에서 철학박사 과정을 마쳤으며(Ph.D.Cand.), 중부대학교에서 3년간 신학생들을 가르쳤다. 종신대학교회 전도사, 승동교회 강도사 및 교육목사를 거쳐 2,000년부터 길교회를 개척했고 하나님사랑-이웃사랑을 모토로 '사랑의 지팡이 운동'을 창안,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국민일보, 조선일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주요 교단들을 통한 한국교회 이웃사랑 캠페인을 주도하며 교회와 지역사회를 네트워킹한 100개 이상의 전국적인 조직을 이끌었다. 2008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부설 사회복지대학원의 설립을 발기하여 최근까지 부원직임을 맡기도 했다. 반평생을 신앙적으로는 정통 보수요,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Calvinism를 신봉하던 저자는 2011년 『기적수업』을 만난 이후 신앙과 신학, 세계관에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신앙에는 육체적 지각에 의존하는 3차원 방식과 내면적 그리스도의 비전에 의지하는 4차원 방식의 두 가지 길이 있음을 확연히 깨달았다. 이 책은 4차원적 내적 기독교의 길을 가는 한 목사가 3차원적 육체적 신앙의 길을 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고차원적 신앙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최근에 내면적 진리에 바탕해 종교다원신학을 연구하는 '아심연구소'를 설립, 온 세상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유롭게 섬기고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4차원 신앙수업

예수에게서 배우는 영적 혁명

저자 **홍광일** | 출판사 **정신세계사** | 정가 15,000원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구분하였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니, 3차원적 시공간의 틀에 갇힌 관점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덧없는 신앙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한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3차원의 세상' 속에서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진면목을 '3차원적 묘사들'을 통해 알고자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매진할수록 오히려 혼란과 피로의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재인가?

원점으로 돌아가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재인지를 지각해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 육안(肉眼)은 허상을 보고, 영안(靈眼)은 실재를 본다. 육안에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보인다.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하늘과 땅 등의 삼라만상이 낱알이 분리되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식의 오류'에 불과하다. 하늘, 천국, 그리스도, 순수의식 등으로 표현되는 일체(Oneness)는 그 어떤 분리도 불가능하며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하나인 상태 그대로 있다.